

특별활동 보면 진학할 대학이 보인다

2024학년도 대학입시에서 GPA 누적 가중치 4.3, SAT 1570점, AP 12개 수강 등 어마어마한 아카데믹 기록을 가진 학생이 지원한 하버드를 비롯해 아이비리그 대학은 물론 미시간 대학, 보스턴 칼리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등으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지 못했다. 왜 그럴까?

‘미래교육연구소’ (소장 이강렬)에 따르면 이 학생은 한마디로 학교 성적을 비롯한 학업 성적은 좋았으나 ‘특별활동(Extra Curricula Activity, EC)’ 등 비학업적 요소에서 평균 이하의 기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지원한 대학들에 지원한 다른 학생들의 기록과 비교할 때 이 학생의 기록은 소소한 탓이었다.

미국 대학입시 전문가들은 학생의 9-11학년의 EC를 보면 그가 지원할 대학의 합격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고 말한다. 물론 학업적 요소가 완벽에 가깝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그들은 학업적 기록이 아무리 좋아도 EC에서 헛점이 보이면 곧 불합격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왜 미국의 명문대학들은 지원 학생들의 액티비티를 중요하게 생각할까? 다음은 몇 가지 주요 이유이다:

- **전인 교육을 받은 학생을 원한다**
상위권 대학들은 학생들의 지적 능력 뿐만 아니라 전인적 성장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리더십, 팀워크, 창의력, 시간 관리 능력 등을 개발할 수 있다고 믿는다.
- **다른 학생과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많은 지원자들이 우수한 학업 성적을 가지고 있다. 액티비티는 지원자를 차별화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 **사회 기여도가 중요하다**

대학들은 학생들이 미래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중요시한다. 봉사활동이나 지역 사회 참여 활동 등은 지원자의 사회적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을 나타낸다.

- **열정과 동기를 본다**
학생들이 특정 분야에 열정을 가지고 오랜 기간 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그들의 헌신과 동기를 보여준다. 이는 대학 생활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 **리더십과 문제 해결 능력 학생을 찾는다**
다양한 액티비티를 통해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문제를 해결한 경험은 지원자가 대학에서 직면할 다양한 도전에 잘 대비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대학 내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

- **학문적 응용력이 높은 학생을 찾는다**
학문적 지식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여주는 활동들은 학생의 실질적인 사고력과 응용력을 나타낸다. 연구 프로젝트, 인턴십, 공모전 등의 경험은 이와 관련이 있다.

학생의 능력과 잠재력은 그가 활동한 EC를 통해 나타난다. 그런데 사실 액티비티를 중요하게 여기는 대학은 아이비리그를 포함한 ‘최상위권’ 대학들, 20-30개의 연구중심대학 등으로 미국 전체 대학 가운데 그 비율로 보면 얼마 되지 않는다. 주립대학을 포함 대부분 대학들은 지원 학생들의 액티비티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 최상위권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EC에 신경을 써야 한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내신 성적, AP-IB 성적, 그리고 SAT-ACT, 교과목 난이도, 학교 석차 등 학업적 요소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능력’ 넘는 수업 선택 말아야

고교 재학 중 유독 한 분야에서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입 컨설팅 전문기관 ‘Admission masters’ (theadmissionmasters.com)의 Richard Vincent Kim 컨설턴트에 따르면 이 경우 가장 쉬운 해결책은 노력해도 최고의 성적을 받지 못

하는 분야에서 최고수준의 클래스를 듣는 것을 피하는 것이다. 나의 강점과 능력에 비추어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 하는 것이다.

물론 전반적으로는 도전 의식을 자극하는 수업들을 듣는 것이 좋다. 그러나 레귤러 수업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는 것이 어려운 수업에서 ‘C’를 받는 것보다는 낫다. 어려운 수업을 소화하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쏟으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다른 수업들도 성적이 부진해질 수 있다.

만약 내가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수업을 선택했지만 하다 보니 고전할 경우 교사나 카운슬러, 친구, 가족에게 도움을 청한다. 부모는 튜터를 고용해줄 수 있고, 친구는 내가 모르는 부분을 도와주려고 할 수 있다. 교사는 방과 후 또는 수업이 없는 시간에 미팅을 잡을 수 있다. 아무도 내가 혼자 고전하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간 아카데미’와 같은 온라인 리소스를 이용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이다. 또한 스터디 그룹에 참가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나처럼 특정 과목이나 분야에서 고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서 조언을 듣는 것도 좋다.



▲ 수업 난이도는 ‘능력’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좋다. 사진=shutterstock

현실적인 대학 지원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리스트를 정할 때는 나의 강점과 능력에 대해 현실적이 되어야 한다. 아이비리그 등 종합 랭킹 20위 이내 대학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과목 분야에서 강력한 성적을 요구한다. 한 분야에서 고전했다고 해서 이런 탑 대학들에 지원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그러나 특정 분야에서 최고보다 낮은 성적을 받거나 몇 도전적인 수업으로 대체했다면, 지원 시 불리한 면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합격을 희망한다면 내가 약한 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는 특출나게 뛰어나야 할 것이다.

만약 고등학교에서 특정 과목에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면, 대학에 가서도 같은 과목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해당 과목을 졸업을 위한 필수 과목으로 들어야 한다면, 어려움이 배가될 것이다.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선택할 때는 전반적으로 도전적인 수업을 수강해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지나치게 무리한 스케줄로 전체 성적을 망칠 위험을 피하고 과외 활동이나 인간관계도 함께 소화해 나갈 수 있도록 ‘밸런스’를 유지해야 한다.

Sandy Kim 라인댄스 초급반 오픈

NOW OPEN

제일 잘 가르치기로 소문난
샌디 김의 라인댄스 초급반이
드디어 오픈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춤!

- 스트레스 해소
- 정신 건강 증진
- 만성질환 예방
- 치매 예방 효과



<초급반>
월·목요일: 오전 9시~10시 15분
<중·고급반>
월·목요일: 오전 10시 30분~오후 12시
<등록비>
일주일에 두 번 참여시 월 \$80
한 번 참여시 월 \$45
* 한국어로 수업 진행 *

T.562.279.4200

305 E. La Habra Blvd.
La Habra, CA 90631